



무선청소기 하나로 물걸레·진공청소 한번에

오토싱의 물걸레진공청소기인 4인(4in1) 스마트청소기가 지난 6월 한 지상파 방송사가 진행한 '중소기업 하든 톱5' 프로그램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았다. 제품명인 4인1은 물걸레기능과 진공청소기능, 물걸레·진공청소 동시기능, 핸디청소기 기능을 한 대에 담았다는 의미다. 손잡이 부분에서 핸디청소기가 분리되는 건 이 제품이 처음이다. 김정택 오토싱 사장(51)은 "흡소핑은 물론 해외 시장도 공략하고 향후 인공지능(AI) 기능을 갖춘 물걸레청소기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토싱은	
설립	2007년 9월
위치	인천 부평구 청천동
제품	4인(4in1) 스마트청소기
특징	자동물걸레진공청소기 분당 회전수 250회

직원 5명이 1년간 연구개발
소음 줄이고 바닥에 LED
낮은 밤에도 사용할 수 있어

인공지능 접목 ... 수출 공략

개발에 나섰다"고 말했다. 2013년 연구원 5명을 모두 투입해 1년여간 물걸레청소기를 개발했다. 2014년 바닥에 두 개의 물걸레를 붙인 청소기 '오토싱'을 만들었다. 오토싱은 원래 수조에 긴 이끼를 제거하는 청소 물고기로, 물걸레청소기와 잘 어울려 제품명이자 사명으로서 사용하게 됐다.

막상 제품이 나왔지만 1년여간 판로 확보에 애먹었다. 2015년 중소기업청(현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통해 롯데홈쇼핑을 소개받았다. 그해 NS·현대홈쇼핑에도 판매했다. 이때 판 제품이 600시리즈로, 유선 및 무선 2종이었다.

2016년 소음이 작고 높낮이 조절 기능을 갖춘 700시리즈를 내놨다. 지난해에는 디자인을 슬림



김정택 오토싱 사장이 자동물걸레진공청소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면서도 세련되게 바꾸고 몸체 바닥에 LED(발광다이오드) 전등을 단 800시리즈를 공급했다. LED 불빛 때문에 어두운 부분도 물걸레질이 가능해졌다. 배터리가 30%가량 남으면 붉은색으로 바뀌고 깜박거리며 충전 시기를 알려주는 배터리 잔량 표시 기능도 넣었다.

◆시청소기 개발하고 해외도 공략
올초 내놓은 6000시리즈는 진공청소기와 물걸레청소기가 하나

로 이뤄졌고 핸디청소기까지 달린 게 특징이다. 핸디청소기로 창틀, 소파, 책장, 침구 등의 먼지를 제거할 수 있다. 두 물걸레의 분당

회전 수는 각각 250회다. 미세먼지를 99.997% 차단해 주는 해파 필터를 적용해 미세먼지 걱정을 줄였다.

김 사장은 청소기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경쟁 제품보다 소음을 절반 이하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모터가 들어 있는 청소기 몸체 내 사출 설계를 30여 번 수정하며 소음을 줄였다.

김 사장은 오프라인 가전제품 양판 시장이 크게 위축돼 흡소핑을 주요 판로로 활용하고 있다. 오는 11월께 해외 전시회에도 나가 는 등 수출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 에이전시 등과 접촉하고 있다. AI 기능을 추가한 물걸레 청소기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선보일 예정이다.

김 사장은 "국내 2000만 가구 중 물걸레청소기 이용자 수는 350만 가구 남짓"이라며 "평균 제품 수명도 3년인 데다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소비자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욕실용품 만들던 이누스 스마트체중계 내놓은 까닭

뉴스카페

아이에스동서의 욕실 사업 브랜드 이누스가 스마트체중계 '제라100(사진)'을 6일 출시했다.



제라100은 체중, 체지방, 체질량지수(BMI), 수분, 골격량, 기초대사량, 근육량, 내장지방 등 총 여덟 가지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이누스헬스' 전용 앱(응용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연동해 사용하면 매일 몸의 변화를 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다.

본체 강화유리 위에 전기전도성을 지닌 투명전극(ITO) 필름을 특수 코팅해 미세하고 고른 전류를 보내 생체 데이터를 측정한다. 특히 수분을 차단하는 코팅 유리를 적용해 발이 젖은 상태에서 안전하고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 롯데닷컴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제라100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결합된 완벽한 스마트 욕실을 완성하겠다는 이누스의 계획에 따라 나온 제품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누스는 지난 달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한 'IoT 환풍기'와 'IoT 비데일체형 양변기'를 출시한 바 있다. 일정 온도 이하로 떨어지면 비데가 자동 작동, 겨울엔 미리 가열해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고 IoT 비데일체형 양변기에 앉으면 환풍기가 자동 작동, 욕실을 환기시킨다.

앞으로 스마트체중계에 올라서면 세면대 거울을 통해 몸무게나 체질량지수 수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지혜 이누스사업부 총괄전무는 "스마트체중계를 스마트 욕실 시스템과 연계해 사용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스마트가전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KBIZ파주산단, 파주희망프로젝트 2단계 사업자로

KBIZ(중소기업중앙회)파주산단은 경기 파주시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파주희망프로젝트 2단계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KBIZ파주산단은 현대산업개발과 공동으로 파주시 파주읍 상암리 일대에 51만㎡ 규모 of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산단은 교통이 편리한 파주역 인근에 있으며 2021년 준공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1888억원. 파주산단 관계자는 "국제적 클러스터 명품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시설용지 총 35만3400㎡의 60%가량인 21만4300㎡를 연구개발(R&D) 기반 첨단산업기업을 위한 용지로 확보했다.

KBIZ파주산단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신규 공장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수도권 지역 중소기업들을 위해 2010년 파주시와 업무협약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파주시 적성면에 1단계 57만㎡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분양을 마친 데 이어 13만6000㎡ 규모 2단계 산업단지를 분양하고 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웅진렌탈 정수기, 약정없이 빌려준다

웅진렌탈이 업계 최초로 하지 위약금이 없는 '무약정 정수기(사진)'를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내고 원하는 기간만큼 빌려쓰는 제품이다.

일반적으로 정수기 렌탈 서비스는 3년에서 5년 정도 의무 이용기간을 설정한다. 중도 해지 시 사용자가 위약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웅진렌탈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수기 사용을 고려하는 고객 중 57%가 약정기간과 위약금을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이를 개선한 것이 무약정 서비스다.

웅진렌탈에서 무약정을 적용한 제품은 '조약돌 정수기 미니(직수형, DP-BU)'다. 7단계 필터 방식으로 물맛과 위생을 동시에 잡은 모델이다. 월 렌탈 요금은 1만8900원(컬러 모델은 1만9900원)으로, 6개월마다 전문 제품 관리 및 필터 교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NH농협금융

114,673시간의 [나눔]을 실천합니다

농업인과 금융소외지역 국민을 위해
114,673시간 동안 나눔을 실천해온 NH농협은행.
일직원 모두의 정성과 마음이 글씨가 되어
세상 곳곳을 밝히는 사회공헌은행으로
더욱 힘차게 달려갑니다.

114,673시간
2017년 NH농협은행 임직원
봉사활동 시간 (1인당 평균 8.4시간 참여)

NH농협은행 이동집포

7년 연속 사회공헌 1위 은행
『전국은행연합회 2017 은행사회공헌활동보고서』 기준

사랑하는 사람에 응원하는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

이 땅의 농업인이 정성껏 키운 우리 농축산물
올 추석도 우리 농축산물로 더 맛있게!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 NH농협은행

“中企 외국인 근로자 쿼터 늘려달라”

중기중앙회, 고용부에 애로사항 건의 ... 최저임금 별도 적용도 요청

중소기업협회가 정부에 외국인 근로자 수 확대와 최저임금 별도 적용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중소기업체 조업률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인력 수급 어려움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고 외국인 근로자 허용 인원을 늘려주고 최저임금도 별도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요청한 내년 외국인 근로자 허용 인원(도입 쿼터)은 6만7000명 이상이다. 고용 만기

가 도래하는 근로자의 대체 수요와 주 52시간 초과 근로에 따른 인력 부족 등으로 올해(4만2300명)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 3분기 외국 인력 도입 쿼터 대비 신청 수요가 1만1700명(42.8%)을 웃도는 등 중소기업체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단순 기능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언

어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노동생산성이 내국인의 87.4%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협상 수습기간을 늘리고 감액 규모를 차등 적용하도록 요청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협상 수습기간 확대, 감액 규모 차등 적용 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중소기업 구인난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